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따뜻한 동행·감동 서비스 제공 강화군, 치매와 따뜻한 동행 ‘남부인지건강센터’ 개관



강화남부인지건강센터 개관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7일 ‘남부인지건강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따뜻한 동행 및 감동을 드리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날 유천호 군수,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및 의원, 대한성공회 김성수 총장, 전등사 여암 주지스님,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했다.

남부인지건강센터는 길상면 온수리 470-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909.59㎡)으로 건립됐다. 1층에는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실, 치매선별검진실, 상담실, 가족카페, 사무실 등을 갖추고, 2층은 다목적 강당을 마련해 치매예방 교실 등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에는 지금까지 2,721명의 치매 환자가 등록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노년을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으며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직원조회 개최 전 직원 검은 리본 패용 강화군 11월 직원조회, “군민의 생명이 최우선, 안전강화 당부”



11월 중 직원조회(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일 ‘11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직원조회에 참석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태원 참사에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을 잃은 모든 유족분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이어 “열린음악회, 10월 사랑 콘서트 등 크고 작은 행사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상황별로 잘 대응한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애도기간 중에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취소나 연기할 방침으로 민간 주관 행사도 자제하거나 애도 분위기 동참을 당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과장들은 11월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 단계에서 우리군의 주요 사업과 현안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1**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정주여건 향상 ‘신문 제3공영주차장’ 준공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접근성 향상



강화읍 신문제3공영주차장 준공식



강화읍 신문제3공영주차장 준공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9일 신문 제3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며 강화읍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접근성 향상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해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내·외빈 관계자 및 관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공영주차장 준공을 축하했다.

원도심의 강화읍 신문리는 복잡한 골목길을 따라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했다. 이에 군은 ‘신문 제3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33㎡에 차량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 주차장 보안을 강화하고, 잔여부지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만 양사면 교산리(주차면 90대), 내가면 외포리(주차면 288대), 강화읍 관청리(주차면 35면) 등에 공영주차장을 잇따라 준공하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읍 원도심 지역은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오랫동안 겪어왔다”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생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화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

유천호 군수 “단 한 건의 재난·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산림공원과 산불진화(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은(군수 유천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에 나섰다.

군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진화장비 정비 및 보수를 지난달 완료했고, 효율성이 저하된 장비는 사전 구입·교체 등을 통해 출동태세를 완비했다.

가을철 단풍을 즐기는 행락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으로 각종 상황 발생 시 초동 출동, 비상 연락망 가동, 산불 예방 홍보 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경찰·읍·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명, 산불감시원 58명) 82명을 일선에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야간산불 긴급대응 및 초동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조사,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 활용된다.

유천호 군수는 “단 한 건의 재난·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며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군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금지와 입산통제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 최벽하 기자

2022 강화 화개정원축제 성료!!

교동 화개정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축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12~13일 교동 화개정원에서 개최된 '2022 강화 화개정원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화개정원축제는 아름다운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5색 정원의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형형색색 꽃들로 꾸며진 포토존, 쉼터 등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았다.

개막 첫날 인기가수 박서진과 박기영, 설하윤, 강지의 축하공연부터 온 가족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어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버스킹 공연에 이어, “또 만나요” 콘서트에서는 민경훈, 은가은, 우연이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축제를 찾은 관람객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 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축제 기간 중에는 지난 6일 “KBS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화개산 솔뚜껑 찾기 스탬프 투어”가 인기를 끌었으며, 아이와 함께 숲속 친구를 만들어 보는 “5색(色) 정원 친구 만들기”와 소창손수건에 추억을 담아가는 “소창에 꽃 피운 정원”, “추억의 달고나 뽑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유천호 군수는 “화개정원이 개장하고 처음 개최한 공식행사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함께 축제를 즐겨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아름다운 계절에 맞춰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아동폭력 근절(END Violence) 캠페인 동참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아동폭력근절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은 지난 31일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폭력 근절(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화군의회에서도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폭력 없는 강화군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 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말 까지 온라인으로 전개되며, 박승한 의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경인북부수협 이만식 조합장을 지목했다. ▣

인천-강화-Galleria KFT,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 유천호 군수 “강화도 농산물의 우수성 한인사회에 알릴 것”



인천-강화-Galleria KFT,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

사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개된다.

‘강화섬쌀’은 청정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 속에 미생물·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 북미지역 한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강화섬쌀을 시작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협약으로 수출길이 터 주신 유정복 인천 시장님과 KFT 민병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강화도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싼 값에 우수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1일 캐나다 한인 최대 유통업체인 Galleria KFT(회장 민병훈)과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캐나다 수출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쌀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강화섬쌀이 선적돼 캐나다 한인

유정복 시장은 협약식 체결에 앞서 “캐나다 벤쿠버의 20만 교민의 먹거리를 위해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산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KFT 민병훈 대표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해 왔고 오늘 드디어 캐나다에 강화섬쌀을 수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몹시 뿌듯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

강화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재무과_징수보고회

이번 보고회는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서별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체납 발생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등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9일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세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화군, 마을 중심 생활 밀착형 체육 복지 확충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강화군 게이트볼대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마을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생활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군은 마을 별로 소규모 공원, 등산로 등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운동기구 50기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단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을 중심의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서도면에는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이 오는 23년에 착공해 오는 25년 준공된다. 지상 1층 연면적 500㎡ 규모로 배드민턴, 탁구 등 선호도 높은 생활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내



강화군체육회 정기 이사회

수영장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영장 AI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에만 마을에서 즐기는 여가 체육시설을 확충을 위하여 ▲강화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준공 ▲길상면 그라운드골프장 준공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조성 ▲마을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차광막, 휴게실 및 전자득점판 등을 설치했다.

유천호 군수는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마을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거점시설인 신정체육시설, 생활체육센터,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르신 군내 버스 무료화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제27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농업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8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제27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및 의원, 박용철 인천시의원, 기관단체장, 농업 관련단체,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강화군수 표창 13명, 국회의원 표창 2명 등 강화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강화농특산물을 이용한 6차 가공품 전시 및 시식, 강화섬쌀 식미평가, 축하공연 등 농업인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유천호 군수는 “쌀 값 하락 등 농산물 판로와 농산물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군민이 직접 뽑는 '군민 추천 우수공무원'

11월 말까지 '우수공무원' 후보자 접수



강화군청

절차를 거쳐 최대 5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민평가단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 추천은 군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6급 이하,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공무원이면, 군민, 기관,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방법은 추천서를 작성해 이메일(ohsgu@korea.kr)로 보내거나 군청 행정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공무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민평가단의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5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민평가단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 투명성 확보 및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군민 추천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수 공무원을 귀감 삼아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2년도 적극행정 강화군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우수 공무원 후보자 추천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적극행정 강화군 우수 공무원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헌신·봉사하고 군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군민들과 함께 선발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총 10명을 선발했다.

추천된 공무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민평가단의 엄정한 심사

지혜의 숲 도서관, 강화군노인복지관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

치매 친화적 문화확산에 앞장



강화군노인복지관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선원면 창4리 사진제공 보건소)



강화군노인복지관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진제공 지혜의 숲 도서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혜의 숲 도서관과 강화군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을 수여했다.

지혜의 숲 도서관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에는 치매도서 코너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강화군과 지역사회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확산과 치매극복을 선도하는 단체이다.

이번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으로 지혜의 숲 도서관과 강화군노인복지관은 치매 발견과 예방, 치매정보 제공, 치매인식 개선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해 치매 친화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2022년 강화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3년 만에 통합개회식 열고 군민 화합 도모 11개 종목 2천여 선수단 참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2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900여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강화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통합 개회식을 개최했다.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군체육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강화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오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전면 취소됐고, 2021년에는 7개 종목만이 대회를 열었다. 통합개회식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에는 총 11개 종목단체가 참여하며, 2천여 명의 선수단이 그동안 같고닦은 기량을 펼치게 된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종목별

상황에 맞춰 개별일정으로 진행되고, 7개 종목(축구, 골프, 족구, 배드민턴, 볼링, 우수, 산악)은 대회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4개 종목은 통합개회식 이후 게이트볼과 궁도가 11월 12일에, 탁구와 테니스가 11월 19일에 치러진다.

유천호 군수는 개회식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우리 군의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체육인프라 확충 등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읍 정토사, 겨울나기 물품 기탁



강화읍

강화군 강화읍에 소재한 정토사(자비불교 정토회, 정인 주지스님)에서는 10일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해 달라며 백미(10kg) 30포와 김치(7kg) 30통을 강화읍사무소에 전달했다.

정인 주지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신도들과 마음을 모은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자광 강화읍장은 “이웃을 위한 관심과 지속적인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품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사용된다.

삼산면, 쓰레기 감량 실천운동 실시 가져온 쓰레기는 되 가져가는 선진시민이 됩시다



주민 캠페인(사진제공 삼산면)

품목별 재활용 봉투 보급 사업은 재활용 봉투 4종(투명페트병·캔·플라스틱·유리병)을 무료 배부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해 진행 중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상습 취약지 13개소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가져온 쓰레기는 되 가져가는 선진시민이 됩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캠페인을 매월 벌여가고 있다.

차관문 면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 없는 삼산면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이 깨끗한 삼산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동면, 위로와 희망의 조명 밝힌다



교동면 위로와 희망 조명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이 코로나19와 농사 일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명을 설치했다.

이 조명은 대룡시장 회전교차에 설치되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교동면을 환히 비추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강화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올 새로운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운 강화의 야경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현미 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훈훈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기자

하점면 새마을부녀회 · 새마을지도자, 삼거천 일원 환경정비활동 합동 실시



하점면 부녀회 환경정비



하점면 부녀회 환경정비

강화군 하점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운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함형원)는 지난 7일 삼거천 일원에서 합동으로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새마을부녀회 14명과 새마을지도자 20여 명은 삼거천 일대를 중심으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에 열을 올렸다.

서운옥 회장은 “매번 환경 정비를 위해 나와 활동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앞선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고장의 환경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함형원 회장은 “수시로 삼거천과 우리 고장을 순찰하면서 강화와 삼거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이웃과 행복더하기 행사 개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사랑의 순무김치 나눔행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미영)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과 행복더하기 행사를 개최하여 사랑의 순무김치 나눔을 실시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순무김치를 만들었다.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순무김치는 저소득층, 장애인 단체, 강화군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지역 내 20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미영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순무김치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선원면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웃사랑 행복나눔 집 고쳐주기 봉사



선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집고쳐주기 봉사활동모습

강화군 선원면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협의회장 한상식, 부녀회장 유갑희)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창2리에 위치한 가정을 방문해

‘이웃사랑 행복나눔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은 수리가 시급한 저소득층을 방문해 노후된 벽지와 고장난 형광등을 교체했다. 해당 주민은 이사 온 지 16년 만에 도배를 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상식 협의회장은 “우리 주변 어르신이 집안 벽지의 곰팡이로 힘들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갑희 부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반찬과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문화관광 나들이 행사 진행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문화관광 나들이 행사

강화군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심양섭)는 지난 7일 관내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문화관광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교동도 화개정원을 방문해 모노레일을 체험하고 연산군 유배지, 박두성 생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여가 활동을 지원했다.

심양섭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이 이번 나들이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선 하점면장은 “바쁜 가운데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하점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

강화군행복센터 동화구연지도사 과정반, 제47회 대한민국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동화구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화군행복센터 동화구연지도사 과정반 수강생들

강화군 행복센터(센터장 강종욱)의 동화구연지도사 과정반 수강생들이 지난 5일에 개최한 ‘제47회 대한민국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동화구연지도사 과정반은 ▲금상 윤옥정, 현재경 ▲은상 이명숙, 이여주 ▲동상 이해경, 김의숙, 이형희 ▲장려상 김도희 등 8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행복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 ▲영·유아,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어르신 맞춤 여가·체력단력실 ▲문화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71개 강좌가 진행 중에 있다.

강종욱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령대별 선호도가 높고 강화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

교동향교, 제21회 기로연(耆老宴) 개최



교동면 제21회 기로연

강화군 교동향교(전교 한기출)는 지난 2일 교동면민회관에서 제21회 기로연을 개최했다.

기로연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축하 케이크 절단, 어르신 식사 대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예조 주관으로 기로소에 입소한 고령의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매년 봄 상사(上巳, 음력 3월 3일)와 가을 중양(重陽, 음력 9월 9일)에 베푸는 잔치를 뜻한다.

현재는 향교중심의 경로잔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 기로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개최되었다.

한기출 전교는 “오랜만에 기로연을 진행하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교동면의 어르신들께서 후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시작에 앞서 이태원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포스코건설 봉사단, 박두성 선생 생가에 촉각 점자 안내판 설치

훈맹정음의 창시자 박두성 선생

포스코건설 봉사단과 인천문화재 돌봄센터는 지난 3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이하여,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촉각 점자가 적용된 종합안내판을 설치했다.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에는 일제강점기 1926년 국내 최초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읽을 수 있게 기여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생가 방문 횟수가 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건설 봉사단의 재능기부와 인천문화재돌봄센터의 협업으로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박두성 선생의 생가에 촉각 점자 안내판을 설치했다. 송암 박두성 기념사업회의 자문을 거친 안내판은 시각장애인들이 박두성 선생의 업적과 생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올해 포스코건설 봉사단은 인천문화재 돌봄센터와 함께 강화유수부 동헌, 이방청, 부근리 고인돌군, 강화산성 등 강화도 내 여러 문화재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 촉각 점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 개선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박두성 선생 생가 촉각 점자 안내판(사진제공 강화군청)

이번 행사를 추진한 포스코건설 봉사단의 김종보 차장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포스코건설 봉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시,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어업활동 위해 어선 점검

12월 16일까지 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 합동점검 어업인의 안전 조업 활동을 위한 어선 점검에 만전



'2022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점검' 을 실시(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활동으로 인한 어업인과 바다 낚시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어선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7일간 인천시 등록 어선 1,470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 어선, 최근 사고 발생 업종,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의 집중점검을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 안전조업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자체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조종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어선(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낚시승객의 안전한 낚시문화 활동을 위해 어선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송기훈 기자

겨울철,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주의하세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유행 중, 개인방역 수칙 중요



본격적인 겨울철 진입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43주차(10.16~22.)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전주(6.2명) 대비 증가했으며, 방역당국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을 넘어선 지난 9월 16일 3년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무료 독감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13~18세 청소년층 사이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독감환자가 10월 말(23~29일)에만 기준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영유아 사이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와 메타뉴모바이러스(HMPV)가 유행이다. HRSV·HMPV바이러스 모두 비말로 쉽게 전파되며 기관지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예방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4주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감시자료 분석결과 호흡기 8종 병원체 중에서 메타뉴모바이러스(HMPV)가 평균 59.7%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두 번째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가 20.5% 검출됐다.

이들 바이러스는 제4급 법정감염병이며,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숨가쁨 등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세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영유아들은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 들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5만명대로 진입하고 있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까지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흡기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위험군 시설 등에서는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1

- 송기훈 기자

질병관리청

겨울철·재유행·대비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감염 및 중증 예방효과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접종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기초접종(1,2차) 완료자 *3,4차 접종 완료자도 접종대상입니다.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접종일과 마지막 확진일 중 더 높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 접종 권장

접종백신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보조적 활용

접종일정

1. 사전예약/당일접종(10.27.(목)~)

- 사전예약 누리집(사전예약 가능) 또는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2. 18세 이상 전국민 접종(11.7.(월)~)

2가백신(기반)	백신종류	당일접종
모더나 BA.1	11.7.(월)~	10.27.(목)~
화이자 BA.1	11.7.(월)~	11.7.(월)~
화이자 BA.4/5	11.14.(월)~	11.14.(월)~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접종일정

의료기관별 예약가능 백신 현황

연번	기관명	연락처	코로나19 참여백신				
			화이자	모더나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1	강화신경외과의원	032-934-2774	√		√	√	√
2	길상의원	032-937-5105	√			√	√
3	남궁내과의원	032-934-2142	√				
4	드림 소아청소년과의원	032-934-1175	√				
5	비에스종합병원	032-290-0001	√	√	√	√	√
6	에바다의원	032-933-0059	√				
7	온수의원	032-937-6835	√		√	√	√
8	유여성 의원	032-933-6080	√				
9	강화병원	032-930-8145	√		√	√	√
10	인성의원	032-932-4455	√	√	√	√	√
11	임성식 내과의원	032-932-3375	√		√	√	√
12	정 의원	032-933-8765	√				
13	제일성모의원	032-934-7576	√		√	√	√
14	중앙의원	032-933-2678	√		√	√	√
15	큰나무 의원	032-233-7588	√			√	√
16	현대내과의원	032-934-4007	√		√	√	√

* 의료기관마다 주1~3일 요일제 접종 시행

◆ 상담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930-4029/4045 ◆



‘11월 17일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 ‘잊지 않겠습니다’

殉: 목숨 순바칠 순 **國**: 나라국 **先**: 먼저 선 **烈**: 세찰 렬

사진출처 - 서대문구청 / 국사편찬위원회

제2의 현충일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날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날, 바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 :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9년 11월 21일 제31회 임시총회에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 제안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념일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추모 행사를 주관했으며, 김구(金九)와 이승만(李承晩)같은 당시의 주요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1970년 이후 순국선열의 날 행사는 정부행사 간소화조치로 현충일(顯忠日) 추념식에 포함되어 거행되었지만,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며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독립유공자 및 유족, 3부(三府) 및 헌법기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기념관에서 거행된다.

‘순국선열의 날’-‘현충일’ 무엇이 다를까?

순국선열의 날이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이면,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웅 등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로 의미가 다르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열사, 남자현 의사 등 우리가 ‘의사’와 ‘열사’라고 부르는 분들 모두가 순국선열에 해당한다.

‘의사’-‘열사’ 각기 다른 호칭을 부르는 이유?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력 행위 없이 정신적인 저항만으로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이라면, ‘열사’는 눈 총·칼 등 무기나 무력을 통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한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유관순 열사)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이다."(안창호 열사)

공휴일이 아니라 자칫 지나치기 쉬운 11월 17일(순국선열의 날). 우리는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생을 다하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최백하 기자

이대형 교육칼럼

한국은 교육선진국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려 시절부터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이다. 우리나라가 세 살 나이부터 어린이에게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평생학습을 가르친다면 우리나라는 당연지사(當然之事)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되어 지식과 기술, 사회 환경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경제적 풍요, 빠른 정보와 의사소통의 기술, 건강 개선, 수명연장 등이다. 2-3 백년 전만해도 30~40세였던 평균수명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100세 시대에 이른 것이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IL, 2019)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유럽연합(Cedefop, 2019)에서도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을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로 천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선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평생교육 수급권을 제안하면서 각국 정부에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평생학습은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1항과 5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성장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평생학습의 혁신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식기반사회로 도래된 2000년 초반에 평생학습의 지원제도를 개혁했던 것이다. 영국은 5세부터 16세까지 총 11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선택사항이다.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등의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학교교육의 단계를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 학습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및 자격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자격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으로 이행되는 통로가 보장되어 있으며 비전통적 학습자를 위한 입학전형에 자격제도와 사전학습인정제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식기반사회의 전환으로 적극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졌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일찍 깨우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공할 과목을 입학 전에 수강해 보면서 진로와 진학할 학과를 결정하기 위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학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여러 경로로 대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특강형식으로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37개 국가 중에서 2020년 10월 5일 한국 교육열(대학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라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손꼽은 세계적인 여론도 높다. 이는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이 주장해온 직지 금속활자 인쇄술과 한글,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최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한국을 교육선진국으로 우뚝 세워야 한다. 인류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으로 전환하는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미래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 교육(유아기교육 분야), 청소년 교육(초중등교육 분야), 성인직업능력개발(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 성인평생교육(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 영역으로 설정해서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1

민시낭



이근향

11월은 김장의 시기
6월은 매실청의 달누군가의 오랜 인내가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만드었네어느 누군가 밤사이 남몰래
매실밭이란 스케치북에
녹색, 황색, 홍색의 물감을 잔뜩
아름답게 뿌려 놓았네당신은 여름의 전도사
여름이란 녀석은 당신이 찾아오면
살며시 우리의 곁을 떠나네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나니
매실액끼스는 무더운 여름날 생명의 물줄기
매실주는 신신과 선녀의 곡주
매실짬아찌는 가난한 시인의 밥도둑이네오랫동안 조상들의 애환을 지켜본 당신
나는 야! 마지막 봄의 한 아쉬움을
백지에 가득 그려본다.

이근향 주요학력 및 주요경력
1967.07.20. 출생
1987.03.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1993.02.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07.18.
한화투자증권(주) 입사
(구 국민투자신탁(주))
2004.08.06.
한화투자증권(주) 퇴사
2010.08.10.
현재 김은중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

강화군,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



한의학 건강교실



한의학 건강교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6일부터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 ▲ 다가오는 김장철 무릎건강 지키기 ▲ 먹고싶은 음식을 못 먹는 무서운 병, 당뇨
 - ▲ 어리석어지는 병 치매, 지혜롭게 예방하기 ▲ 뇌졸중, 알아야 큰 화를 면한다 등이다.
- 또한 강의 후에는 한의사가 개인별 건강 문제를 상담해주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930-4038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웹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